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
	<b>배포일시</b>	<b>2017. 9. 11.(월) 총 3매(본문2)</b>
<b>담당 부서</b>	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	<b>담당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김근오, 사무관 박진홍, 주무관 오요셉</li> <li>• ☎(044)201-4514, 4515</li> </ul>
<b>보 도 일 시</b>		2017년 9월 1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11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##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, 올해 12월 1차 사업지 확정 지자체·지방공사 대상 순회 설명회...공공임대주택·편의시설 등으로 개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지자체·지방공사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.
  - \* 대구·경북, 광주·전남·전북(9. 12.), 부산·울산·경남·제주, 대전·세종·충남·충북(9. 13.), 서울·인천·경기·강원(9. 15.)
-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(7. 25.)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좁고 낡은 청사를 공공임대주택, 편의시설, 신청사 등의 복합용으로 개발하는 것이다.
  - 편의시설 임대료와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며, 사업완료 후 청년은 저렴한 임대료에 도심 내 주거지를 확보하고, 지자체는 신청사를 얻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.
-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, 시·군·구 공무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경기도시공사 등의 지방공사 직원도 참석한다.
  - ‘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구조’, ‘사업 소요 자원’, ‘국내·외 주요 우수사례’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여 12월경에는 1차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.
- 국토부 관계자는 “도심 내에 청년층의 삶의 터전을 확보하여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, 도시재생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	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박진홍 사무관(☎ 044-201-45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

□ **추진 배경**

-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의 경우 용지 부족으로 신규 건설에 애로
  - 노후 공공청사는 상당수가 도심에 위치하고 저층으로, 재건축시 활용 가치가 높지만, 공공청사 건립 자원 부족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
- ⇒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 · 청사 · 수익시설로 복합개발시 도심 임대주택 공급, 청사신축으로 인한 도심재생, 공공서비스 질 제고 등 다양한 효과 기대

<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개념도 >



□ **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전·후 비교(오류동 주민센터)**

